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죠이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 입이 내게 있으면(찬23/새23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홍식 목사 2부/배진용 집사 3부/백영만 장로 4부/이혜원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깨뜨린 옥합(작곡 이현철)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스가랴 1:1-6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5:1-44
- 말씀 Message 1, 2, 3부Rev. David S. Park **박성권 목사**

유턴과 리턴

-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예수 믿음맛 나는 인생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호와께 돌아가자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2022년 주제곡)
- *축도 BenedictionRev. David S. Park **박성권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선한 씨와 악한 씨

Good Seed Vs. Bad Seed



박성권 목사 / Rev. David S. Park

봄은 심는 계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3, 4월 중에 씨를 심고 여름 동안 자라서 가을이면 거둡니다. 봉지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는 씨를 심으면서 열매나 꽃이 필 것을 기대합니다. 영화 "Secondhand Lions"에서는 은퇴한 두 친구가 고아가 된 조카를 여름방학 동안 돌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대평원"이라 불리는 아주 넓은 땅에서 사는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해도 한참 떨어진 거리였고 동네 시장도 아주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건들을 팔려고 많은 장사꾼이 이 마을을 거쳐 갑니다. 한 장사꾼이 과일과 야채 사진이 있는 씨앗 봉지들을 보여주자, 이 어린 소년은 씨앗을 사주면 농사짓는 일을 돕겠다고 약속을 하며, 토마토, 오이, 당근, 사과, 옥수수 등의 씨앗을 골랐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농기구를 사서 열심히 밭을 일궈줍니다. 소년은 신이 나서 씨앗을 심고는 씨앗을 심은 자리 앞에 빈 씨앗 봉지를 꼽아놓았습니다. 얼마 후,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열매가 열리면 이것으로 어떤 요리를 해 먹을까 생각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몇 주 후에 보니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이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장사꾼이 이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포장만 다르게 했을 뿐 들어 있는 씨앗들은 모두 옥수수였습니다. 자연의 질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입니다. 조그마한 씨앗이라 해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자라날 것인지 DNA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 씨는 사과를, 토마토 씨는 토마토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씨앗으로 시작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사소한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열매로 자라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라고 사무엘 스마일스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심고 계시는지요? 어떤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심고 계시나요? 선한 씨앗입니까? 아니면 악한 씨앗입니까? 혹시 똑같은 생각을 심고 나서 씨앗의 겉봉투에 있는 사진처럼 여러 가지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생각부터 경건한 DNA로 프로그램된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햇빛이 비치거나 비가 올 때, 고요하거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강단을 통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은 씨앗, 큐티인으로 심은 씨앗,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씨앗, 이 모든 것이 구원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의 단을 추수하시길 축원합니다

Spring is known for being the "planting" season. Many seeds are planted during the March and April months so that they can grow during the summer and there can be a harvest in the Autumn months. You would expect to harvest the same fruit or flower from the picture on the seed package. In the movie "Secondhand Lions", two retired men hosted an orphaned relative boy on their home in the Great Plains. They had acres of land and the nearest neighbor living several miles away, the markets were also far away in small towns. Traveling salesmen would come and sell all kinds of items. Brooms, gadgets, knives, even pet lions! One time a salesman came to sell various seeds packaged in pouches labeled with pictures of fruits or vegetables in individual packs. Excited, the young boy asked if he could purchase some, promising that he would help to farm the produce. "Tomatoes", "cucumber", "carrots", "apples" and "corn" were among his choices. They went to town to get all kinds of gardening tools and equipment. They spent weeks cultivating the land and joyously planted the rows of seeds with the empty packet raised on a stick to identify the plant. After a while, they jumped with joy as the sprouts began to surface. They talked about the kinds of recipes they would have for each day. After a few weeks, they realized that the plants in the separate rows looked all too familiar. They plants all looked exactly like the first row of corn they had planted. The salesman had swindled them. He packaged corn seeds in all of the pouches but with different pictures. The law of the seed is that "you reap what you sow." Each seed has within it a DNA program that gives the instructions for the type of harvest from that seed. An apple seed will produce apples. A tomato seed will produce tomatoes. We are also seeds that become a harvest. It begins first with our thoughts. Thoughts are a seed. They are planted in our minds and will grow into a harvest. Samuel Smiles said, "Sow a thought and you reap an action; sow an act and you reap a habit; sow a habit and you reap a character; sow a character and you reap a destiny."

What kinds of thoughts are you planting? What kinds of seeds are you planting in others? Are you good seed or bad seed? Do you think that you can plant the same seed and are mistaken to think you can get different results? I pray that our thoughts are seeds with Godly DNA. That regardless of sunshine or rain or storm, the thoughts sown from the Word of God from the pulpit, from QTin, and from the prayers for ourselves and for our children, will reap a destiny of salvation and blessedness. May our words and actions be Christlike in all aspects and reap a harves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박성권 목사

유턴과 리턴 스가랴 1:1-6

1. 시장에서 장을 다 보시고 카트를 제자리에 돌려 놓습니까? 아니면 파킹장에 그냥 놔 두십니까?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반품해야 하지만 돌려주기가 귀찮아서 혹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아직도 놔 둔 것이 있나요?

2. 성경에 계보(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계보, 신앙의 족보를 생각해 보면 당신의 신앙을 어디까지 찾아가실 수 있나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오도록 전도하신 그 분들이 생각나시나요? (고전 15:3; 딤후 1:5)

3. 우리 삶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합니까?
 - a. 영적으로? (약 4:8)

 - b. 가정에서? (행 16:31)

 - c. 일터에서? (골 3:23)

 - d. 교회 봉사에서? (벧전 4:10)

4. 성경에서 이웃하고 먼저 화해하고 주님앞에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5:24) 용서와 화목을 가져야 할 분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기



■ 적용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임 목회자 소개

박성권 목사



1. 베델교회에 부임하신 소감을 나눠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역동적인 베델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베델의 가족이 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김한요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비전을 보면서 베델 교회의 동역자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 나라 위해 쓰임 받는 복된 목회자가 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기도 에 힘입어 2009년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그 해,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CALLING)을 받았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신 한국 바울교회 원팔원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장영춘 목사님은 저를 그 수련회의 마지막 간증자로 세워주셨는데, 저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온 성도님들 앞에서 나눌 때 이것이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970년대 이민교회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야곱의 축복처럼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 믿음의 선대와 후대를 섬기는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3. 좋아하시는 성경구절을 나눠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베드로전서 5:6) 인내와 겸손은 실행하기 쉽지 않은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고백한 다윗이 되든지 아니면, 기다리지 못한 사울이 되든지 인생은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에 능숙한 다윗이라도 "주여! 전쟁에 올라가리이까?"라고 물었듯,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4. 베델에서 앞으로의 비전과 각오를 나눠주세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든든히 서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겠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무너져가는 말씀을 다시 일으키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은 에스더처럼 꼭 필요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왕의 인봉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다니엘처럼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영적 부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For His Kingdom)!"라고 부르짖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베델교회 자녀들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베델 사역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사역팀

1.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사역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팀은 2021년까지 방송팀에서 담당하던 일들을 세분화해 새롭게 구성된 사역팀입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주 중사역들이 단히게 되면서 성도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유튜브의 "베델 교회 학교"채널과, "예수야"와 같은 주간 특별 기획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팀의 주된 사역입니다. 사역 팀원-김광영 집사(팀장) 김홍식 목사, 최철기 간사(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디렉터 및 음향, 베델 주제가 작곡자), 최종형 간사(방송실, 안수집사)

2. 주님이 새로운 사역을 열어 주셨다면 그 뜻이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묵상하며, 그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술들을 돌아보

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총 60만 뷰에 그쳤던 베델 교회 유튜브 채널 조회 수는 작년 한 해 동안 4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은 베델 교회학교 모든 부서에서 매주 아이들을 위한 말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다시 열린 수요 예배를 위한 일과 목요일 오전에 성도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준비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한 '걸어서 베델 속으로'는 정승락, 강문구 목사님이 교회 내의 다양한 사역을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베델 워십, 베델 콰이어의 찬양은 물론, 셀 사역 및 큐티인 사역 활성화에도움이 되는 모든 콘텐츠를 제작하여 남가주는 물론, 미전도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3.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사역을 요약하자면 온라인을 통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의 콘텐츠 사이에서 우리가 만든 것이 자그마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성도님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해주시며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또 앞으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와 충고도 환영합니다. 올해 새롭게 높이 날아오르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사역팀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김광영 집사 (949)233-0677

셀목자 정기모임

등 토닥토닥, 떠밀린 은혜 자리

2022 셀목자 정기모임을 준비하면서 사역의 중요한 역할의 일환으로 목장 담당 목사님들과 각 셀목자의 '소통의 통로'로 섬기시게 되신 셀목자님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대면 예배로 교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영상 메시지와 큐티를 통해 은혜받고 말씀을 사모하며,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는다느 느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주일 예배의 뜨거운 찬양과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며 말씀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며 주차 차량 봉사료, 셀 사역팀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레위 기도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은혜가 큼니다. 말씀 훈련받으며,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이 큰 영광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김재호 집사(은혜 목장)

"여보, 나 요즘 부쩍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 근데 기쁨이 없네." 얼마 전 셀모임을 준비하며 아내에게 건넨 고백에 아내의 이내 "하나님은 기뻐하실거야" 하며 오히려 위로를 건네줍니다. "하나님, 내게 섬김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를 되뇌며 한 주를 살아가다 문득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참 많은 자리로 나를 우겨넣으신 하나님, 쉽게 지치고 주저앉는 나에게 힘주시려고 마치 인심 좋은 배스킨라빈스 사장님처럼 다양한 은혜의 맛을 한 컵에 꼭꼭 눌러 담고 계신 하나님을 상상해봅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이 납니다. 또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셀 사역팀의 스태프와 셀목자 정기 모임의 찬양팀으로 나아갑니다. 섬길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오형익 집사(사랑 목장)

셀목자로 십여 년 섬기며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내년에도 부족한 내가 셀식구를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저로 인해 셀식구의 영혼 구원에 걸림돌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기를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셀목자 정기 모임을 통해 토요일 새벽을 뚫고 나오신 200



여 명의 셀목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자체가 힘이 되었고 셀목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 말씀에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셀식구의 영혼과 삶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상원 집사(소망 목장)

2022년 새롭게 시작된 셀목자 정기모임을 기대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셀목자로 섬길 수 있음이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자주 볼 수 없었던 목장의 셀목자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더 잘 알아가고 친해지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특별히 주일 설교 요약을 해주셔서 다음 날 주일 예배의 큰 은혜로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깊은 나눔을 통해 서로의 신앙이 더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우용 집사(믿음 목장)

작년부터 셀목자로 제이 워커스 셀을 새롭게 섬기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큼니다. 셀을 섬기기 위해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니 말씀에서 받는 은혜가 배가 되었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셀모임을 준비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숨 쉬니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와 같은 사역에서 섬기다 보



니 부부 사이도 훨씬 가까워지는 축복도 받으며 이 은혜를 어떻게 성도와 나눌까 생각하던 중, 셀목자 정기 모임 중 화평 목장의 스태프로 기꺼이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매 정기모임에서 주시는 말씀에 도전이 되고 받는 은혜가 많아, 부족하지만 열심히 힘써 섬기겠습니다.

존 한 집사(화평 목장)

새롭게 편성된 셀목자 정기 모임은 얼마나 많은 셀목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계는지 실감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햇병아리 셀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보조 스태프로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나눠진 총성 목장의 셀목자의 생일축하와 모임 후 간식을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항상 다른 셀원들의 생일은 챙겨주면서 정작 자신들의 생일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인 셀목자님의 생일을 성심껏 챙겨 드리려고 합니다. 정기모임을 통해 베델교회의 허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선배 셀목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그들의 값진 경험을 잘 배워, 맡겨진 셀을 충실히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며 부족한 자에게 소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최동주 집사(총성 목장)

BGC대학부 수련회 기금 행사

하나되어 뜨겁게 달궜진 BGC

Ardent Ministry는 베델 그레이스 교회(BGC, 영어권 교회)에 속한 대학부 예배입니다. Ardent를 섬기는 대학부 청년들이 수련회 사역 기금 마련을 위해 2주에 걸쳐 핫도그를 직접 만들어서 코트 야드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한어 예배, 영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께서 핫도그를 많이 사주시고 넉넉하게 후원금까지 보태 주셔서 Ardent Ministry는 목표한 금액을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대학부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로서, 많은 베델 교회의 성도님들이 길게 줄을 서서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을 보며 정말 놀랐고 큰 은혜와 감동을 하였습니다.

돕니다. 도움을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영어권 대학부가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 Ardent Ministry를 기억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John Oh 형제(BGC 대학부)

저는 베델 그레이스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된 유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부 식구들과 함께 영어 대학부 펀드레이징 사역을 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명랑 핫도그 펀드레이징은 베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형제자

매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일이 고되었고, 많은 일을 해야 했지만 모든 일을 힘을 합쳐 해낼 수 있었고 마치 한 몸과 같이 서로를 세워주며 성공적으로 펀드레이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부가 하나로 뭉쳐서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이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이번 펀드레이징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을 통해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델의 성도님들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Yuan Feng 형제(BGC 대학부)



은퇴 목사 조찬 모임

조찬의 (味), 칭찬의 (美)

베델교회는 구정(舊正)을 전후해서 목회의 구정(舊正)을 소환해 주는 은퇴 목사 조찬회를 매년 열어줍니다. 참으로 고마운 초대와 따뜻한 대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발 성성한 은퇴 목사부부들이 삼삼오오 앉아 계셨고, 혼자되신 사모님들은 한 테이블에 앉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김한요 목사의 환영 인사와 축복 기도 에 이어 홍성아 집사님의 'You raise me up'이라는 명곡의 바이올린 독주는 모두의 감성을 고양한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아가자기한 테이블 셋팅이며 따끈한 떡국 한 그릇, 몇 가지의 미니 반찬은 입에 넣지 않아도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했으며 정갈한 후식도 일미였습니다. 2부 순서로는 율놀이로 두 팀의 탄성이 그리 떠들썩하지 않았고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화기애애한 신사 게임이었습니다. 양 팀에 수여되는 상품은 1등도, 2등도 없이 공평한 천국 산수로 계산해 보니 1등+2등=평등(무등), 모두가 1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섬기신 분들, 섬김받은 분들 모두가 기뻐했던 작은 천국 잔치였으

며, 조찬회가 끝날 무렵 '칭찬 인사' 주고받기에는 모두가 만면에 미소로 섬김이들은 은퇴 목사의 '목회 수고'를 칭찬하였고, 은퇴 목사님들은 섬김이들의 '봉사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의 꽃이 만발한 조찬의 미(味)와 칭찬의 미(美)가 어울린 감사의 식탁, 유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주연 은퇴 목사



팬데믹을 지나 교회 사역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도 조찬 사역팀의 팀장을 맡고, 처음 하는 사역이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은근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사역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연세가 되어서 교

회 사역을 내려 놓으신 목사님들과 사별하신 목사님, 사모님을 조찬으로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마침 설날이라 떡국과 떡국에 어울리는 반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섬겨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적은 인원이지만, 일당 100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또 한국을 떠나 미국에 계시기에 명절의 추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장식의 달인이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테이블과 가리개로 병풍처럼 만들어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 분위기를 내어 멋지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시무 장로님들께서 이른 새벽부터 빨간 앞치마에 흰 셔츠를 입으시고 최고의 웨이터로 어찌나 잘 섬겨주시는지 모두가 감동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주님의 일은 순종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해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명환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 목회지원/선교/BCA/QTM: 정승락 목사
- 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 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교육목사/전도폭발/기도: 박성권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한어권: 정티나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교회 인스타그램 오픈

할렐루야!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untact) 시대에 비대면으로 더 많은 성도님과 소통의 채널로 사용될 수 있는 베델 교회의 Instagram이 새롭게 오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YouTube와 Facebook에 이어 요즘 남녀노소 많은 분의 일상 소통 채널인 Instagram은 베델의 성도님들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에게 교회의 소소한 일상들을 알리고 공유하는 창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델을 만들어가는 구성구석의 이야기를 때로는 재밌게, 때로는 눈물나게, 혹은 유쾌하게 나누며, 베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푸근하게 느낄실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베델의 Instagram은 교회의 사역과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모습을 그대로 진솔하게 나누는 곳입니다. 주일날 코트 야드의 풍경은 물론, 다양한 세대별 예배 현장,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누구나 은혜로운 의견을 달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평범하고 작지만 베델의 하루하루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Instagram은 베델가족들이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Instagram을 이용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혹은 베델교회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댓글 달기를 하실 수 있고, #해시태그(hashtag)를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의 코멘트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베델 Instagram은 홍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역의 현장과 셀모임, 공동체 훈련 모임, 다양한 섬김의 모습들을 교회 Instagram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사진을 아래의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하여 현장의 훈훈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어디에서든 홍보팀의 카메라와 만나실 땐 먼저 기쁘게 반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베델 성도들의 교제가 Instagram이라는 온라인 장소에서도 훈훈하게 이어지길 소망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베델교회 인스타그램: bethelchurch_irvine
- ▶ 문의: 박관수 집사 (949)701-9011, 이자영 집사 (949)771-6526

예배 봉사자

| | | | | | |
|-----------------|-------|--------|--------|--------|--------|
| 주일예배 대표기도(3,4월) | 3/20: | ①부-송덕영 | ②부-선상균 | ③부-송석원 | ④부-이효민 |
| | 3/27: | ①부-안경수 | ②부-안지호 | ③부-여홍평 | ④부-최재환 |
| | 4/3: | ①부-연규호 | ②부-오승홍 | ③부-우성무 | ④부-강수연 |

| | | | | |
|--------------------|-----------|-----------|----------|----------|
|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3,4월) | 3/19: 김종철 | 3/26: 김종현 | 4/2: 김진호 | 4/9: 김진환 |
|--------------------|-----------|-----------|----------|----------|

| | | | | |
|-----------|---------------------|-----------|---------------------|----------|
| 강단꽃(3,4월) | 3/13: 한동희, 윤미경, 임영신 | 3/20: 박세환 | 3/27: 선상균, 손용주, 장효준 | 4/3: 양석주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지연(소아과), 간호사-윤경자 다음주 | 의사-전미림(한의과), 간호사-김명숙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베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새생명 축제(D-35) 4월 17일 부활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VIP 작정카드는 언제나 작성하셔서 VIP 작정함에 제출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썸머 타임(Daylight Saving Time)시작 오늘(13일)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주일예배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2시가 3시로 됩니다.)

◆ 베델 수요일 예배 안내 주중에 드러지는 공예배로서 수요일예배가 매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러집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것입니다. *예배실황은 저녁 7시에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주차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비전 주차장 입구는 셔틀버스 진입로(원형 로터리)가 아닌 반대편쪽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비전센터 뒤편 중국교회 주차장은 BGC 영어권 예배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특별 프로그램 "걸어서 베델 속으로" 새롭게 시작된 목요 프로젝트 "걸어서 베델속으로: 본격 사역체험 프로그램" 1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베델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팀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궁금했던 사역의 자리를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Beyond the Blue(B+B): Grief share (사별 가정 회복 세미나) 사랑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잃고 상실감과 슬픔의 여정을 지내는 이들을 위한 사별 세미나 모임을 갖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귀한 은혜의 모임에 초대 합니다. 기간: 3월 25일(금)-6월 24일(금), 13주차 시간/장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조이채플, *저녁식사 제공 프로그램: 비디오 세미나(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이야기와 실제 경험담), 그룹모임(삶의 나눔을 통한 생각 정리), 실습(뜻 깊은 추억의 나눔, 기도, 성경구절) 등록비/등록 방법: \$20,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 문의: 정우영 장로 (949)943-7320, 이란혜 전도사 (949)422-8828

◆ 교사 모집 K-1 부서(Kinder-1학년)에서 2부 예배 교사 한 분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과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 2022 교회학교 VBS 조기등록 2022 VBS가 'Zoomerang: Returning to the Value of Life'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13일)부터 조기등록이 시작되오니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꼭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소망부는 추후에 등록광고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VBS 기간: 영유아 6월 7일-6월 10일,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K-5 6월 14일-6월 18일 오후 1시-오후 6시 30분 조기등록 기간: 3월 13일-3월 27일 조기등록금액: 영유아 \$50, K-5 \$60 일반등록 기간: 3월 28일-4월 10일 일반등록금액: 영유아 \$65 K-5 \$75

◆ 교회학교 다음세대 제자훈련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도록 리더로 훈련하는 제자훈련이 시작 됩니다. 다음세대 자녀들이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대상/훈련기간: 5-12학년, 3월 13일-5월 29일,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예삼 새가족 환영회 예삼의 모든 새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예삼 청년부가 더욱 역동적으로 부흥하도록 기도와 격려해 주십시오. 일시/장소: 3월 13일(주일) 오후 5시, 유년부 예배실 문의: 김유미 전도사 (714)900-1253

◆ 베델 콰이어 단원 모집 1부 예배에 더 풍성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단원을 모집합니다. 코트야드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근수 장로 (714)292-8182

◆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헌금 전달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에 감사합니다. \$20,800의 특별헌금을 해주셨고, 이것을 베델교회가 속한 C&MA 교단 구제부 CASA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 카페 카드 재활용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 사용한 베델 카페 기프트 카드를 카페로 가져오시면 드립커피 한잔을 무료로 드립니다.

◆ 시니어 테이블 유년부실(구, 식당) 옆, 작은 코트야드에 어르신들을 위한 파라솔과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 카페에 음료 자판기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을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김남옥 성도님(석연경 집사의 모친, 조석균 성도의 장모)께서 3월 9일(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U-turn & Return

Zechariah 1:1-6

1. Are you one of those who return the shopping cart back to the rack or do you leave it in the parking lot? What items do you still have at home because it wasn't worth returning back to the store?

2. The Bible has many records of genealogies. Aside from our family genealogy, there is a spiritual genealogy. How far back can you trace your spiritual growth? Who do have to thank on earth in order that the Gospel message of salvation came to you? (1 Cor. 15:3; 2 Tim. 1:5)

3. Which area of your life do you need to "return" to God? In what ways?
 - a. Spiritually (James 4:8)

 - b. Family (Acts 16:31)

 - c. Work, Business, Career (Col. 3:23)

 - d. Church Service (1 Pet 4:10)

4. The Bible teaches that we are to reconcile with others before coming back to worship of God. (Mt 5:24) Who are the people with whom you need to have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Please pray for them.

Apply to Life

